

선관위,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위법성 조사

지난해 7월부터 21명 채용 운영
현행법과 안맞아 편법 비판 제기
시의회, 나환 의원 제명 검토

제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환(민주·비례대표) 의원의 착복 의혹 경위를 살펴보고 위법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보좌관 급여 착복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8대 의원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광주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각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관련 운영·사용 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조사는 시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해 보좌관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을 따

광주시의회는 7대부터 이 같은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

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임무가 과중해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하면서 유급 보좌관제 합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광주시의회도 나환 의원이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식 회부했다.

김동찬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장이었던 나 의원의 사퇴에 따라 송형일(민주·서구3)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

광주시의회 내부에서는 나 의원의 보좌

관 급여 착복을 파렴치한 행위로 보고 최고 징계 수인 '제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이 지난 4일 나 의원의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나 의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낸 돈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인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A씨가 받는 월 급여 240만원에서 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문제가 됐다. 나 의원은 문제가 커지자 A씨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880만 원을 다시 A씨에 돌려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년 국제수목비엔날레에 초대합니다"

전남도, 주한외국공관 간담회
외국 관람객 유치 홍보

지난 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전남도가 제10회 주한외국공관 초청간담회에서 71개국 주한외국대사와 주한외국공관 관계자,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사도 국제관계 대사, 지자체 국제행사홍보 관계자 등 150여 명에게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홍보했다.

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된 전시관 연출과 수목달빛 패션쇼, 수목영화제 등 관람객 참여 주요 프로그램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행사 홍보를 시작으로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미주, 유럽 등 여행업계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수목비엔날레와 연계한 여행 상품 개발로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관람객 유치를 위해 교육청, 군부대, 미술대학, 기업, 각종 행사장 등을 방문하거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이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펼쳐진다.

참여 작가는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15개국 160여 명이 전시에 참여해 수목의 전통성과 현대적 창조성이 융합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날 전남도는 수목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예향 전남의 자연환경과 수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적 이미지로 소개해 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김성훈 사무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와 불거리 제공을 위해 각종 홍보물과 다국어 제작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과 편리한 전시환경 조성 및 작품설명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준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자원봉사자대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9 광주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21개 새로 지정

전남도는 2019년 하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1개를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올해만 49개 기업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함에 따라 민선 7기에 전라남도의 사회적기업은 214개로 늘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된 기업들은 제조, 유통, 배송, 위생 분야 등에서 고품질,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을 심사한 결과 (주)페스원 등 57개 기업에게 362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유)공간디자인 등 35개 기업에게는 사업개발비 7억원, 시설장비지원사업 10억원 등을 지원하기로 해 올해만 2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광고 디자인 등 콘텐츠 사업, 놀이, 음악교육 등 교육사업, 문화예술 기반 공연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진입해 취약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1333개로 민선 7기 사회적경제기업 2000개 육성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으며 300개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214개로 70%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중화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770만달러 MOU

전남도는 지난 6일까지 3일간 현대호텔 목포에서 2019년 중화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145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37건, 770만달러의 수출의향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하강 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18명, 대만 1명, 홍콩 1명 등 20명의

중화권 바이어를 초청해 이뤄졌다. 중화권 바이어가 관심을 보인 화장품, 식료품 등 전남지역 50여 수출기업이 참가했다. 바이어와 참가 업체와의 1대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일부 바이어는 상담에 응한 업체의 회사를 방문해 제품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마무리... "함량미달 심사"

마스크 예산 삭감했다 되돌리고
민간어린이집 지원 대폭 늘려

감하는 대신, 45억4800만원(53건)을 증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사업비 규모가 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게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한 '꼼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임에도 '낭비성 사업'이라며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비를 절반가량 삭감했다가 되돌리는가 하면,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민간어린이집 지원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함량미달' 심사를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행부가 책정한 예산을 해당 상임위원회가 애초(17억7100만원)보다 18억 8900만원 늘어난 36억6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은 기존 안대로 유지됐다. 해당 사업은 집행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의회 스스로 증액한 것으로,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국·공립을 뺀 민간어린이집에만 지급기로 하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한 오하근(민주·순천) 의원도 배우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점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8조 1588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45억9000여만원(49건)을 삭

해당 상임위에 속한 한근석(민주·비례) 의원의 배우자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사적인 이해가 반영된 예산 증액'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또 애초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예산은 집행부가 편

성한 원안대로 의결, 통과됐지만 국비를 확보하고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개념없는' 예산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집행부가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27건이나 증액, 지역구 민원 민원창기시설 기밀유지 예산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의 후보 검증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일탈 행위에 유감의 뜻을 전하는 성명을 내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청원 시 예의 없는 엄중 처벌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부정·비리 연루 후보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당원 교육 연수를 강화해 당 윤리 규범 준수 및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12일 제 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